

한경협

ESG Bulletin

2024. 06 | 제 4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공시규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24년 상반기 ESG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ESG 공시 의무화>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공시규제 적용 시점은 '27년에서 '29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ESG 소송 DB를 분석해 보면 ESG 관련 소송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157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2쪽, ESG Litigation CAS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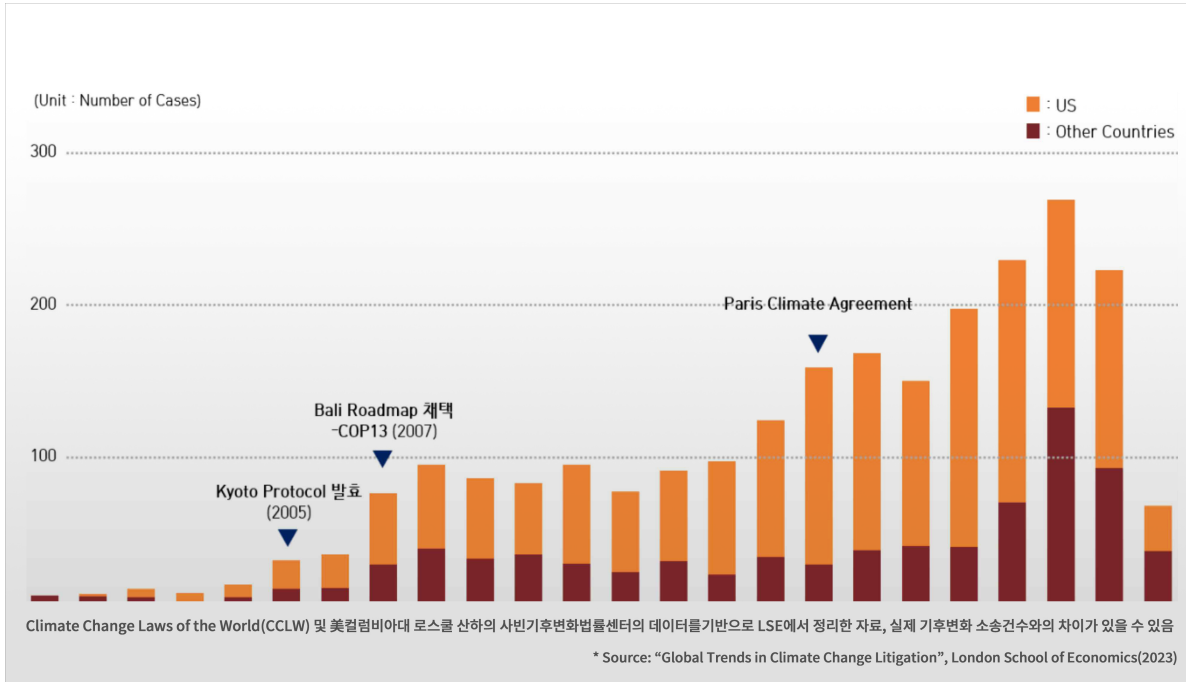
그런데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기업이 공시한 자료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Saying-Doing Difference) 점을 문제 삼고 있다. (2쪽, Top 5. ESG 분쟁 이슈 참조)

ESG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가치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미국 상위 500대 기업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역시 ESG 소송 가능성이 HR, 계약위반, 소비자 관련 소송보다 2.6배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결국 ESG 공시 준비의 시작은 최신 ESG 공시규제 동향에

1) The Year Ahead, Global Disputes Forecast 2024, Baker McKenzie (2024)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ESG 공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Litigation CASE('00.01~'23.05) >



< Top 5. ESG 분쟁 이슈 >



최신 ESG 공시규제 논의동향

지난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ESG 규제 논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쟁점 사항은 총 7개로 요약된다. 우선 ① 규제 로드맵 발표시기, ② 공시 시기, ③ 기타 보고사항(101호), ④ 책임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협의된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으나, ⑤ 공시 규제 시행연도, ⑥ 의무화 방식, ⑦ Scope 3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크게 다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는 적어도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문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일관된 의견이 확인되는 쟁점사항 중 하나는 정부의 공시규제 로드맵 발표시점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ESG 공시가 투자자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시규제가 언제 시행되는 것과 관계없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규제 상황들을 감안하여 우리정부가 **공시규제 로드맵을 빠른 시일내 발표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공시규제가 언제 시행되는 것과 관계없이 연중 언제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쟁점사항 역시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내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시기, 재무공시와 중복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4분기 재무공시를 하고, 2/4분기(6월 말)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기업 부담도 경감하고, 시장의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부 3/4분기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ESG 공시 시점이 너무 늦추어지면 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다음은 ISSB 기준을 채택하는 나라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101호에 대한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101호를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ESG 공시기준의 경우 글로벌 정합성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기준을 채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ESG 공시 기준이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방향이라면, 제시된 101호(안)은 제외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다음은 책임면책 조항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Safe Harbor 와 같은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ESG 공시와 같이 기업이 공시사항을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는 원칙기준(Principal Driven Standard)의 경우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공하는 정보를 줄이려 하고, 이는 사용자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면책 조항을 법제화하여 안정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논리이다.

다음은 협의되지 않은 3가지 쟁점 사항들이다. 첫째, ESG 공시규제 도입 시점이다. 현재 논의는 '28년과 '29년으로 좁혀졌으나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공시방식에 대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법정공시가 정확한 정보공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법정공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공시 문제는 책임면책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은 Scope 3 정보에 대한 정보공시다. 산업계는 Scope 3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면 ESG 공시규제 시점은 더 늦추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 실사법(CSDDD), 배터리 규제법(EUBR) 등 이미 시행된 각종 ESG 규제들이 Scope 3 정보공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보 제외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다. 책임면책 조항의 경우, 초안이 제시된 이후 보완의 문제임으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쟁점사항은 공시규제 시점을 '28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9년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Scope 3 정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ESG 공시규제 대응방향

결국, 남아 있는 과제는 ESG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사항은 <ESG 공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다. 지금까지 ESG 정보공시는 ESG 담당자가, 팀장과 상의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득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일부 기업에서 이사회를 통해 ESG 공시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있는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기 보다, 보고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ESG 공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ESG 공시에 대한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SG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ESG 공시가 절차에 따라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팀의 역할이 구분되어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는(Check & Balance)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진과 이사회 역할 구분하여 ESG 공시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할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 효과가 있는 신뢰할 만한 제3자 검증기관을 선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역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ESG 공시 리스크 경감을 위한 이원화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ESG 공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초점이라면, 신뢰할 만한 검증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ESG 공시 외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해당된다. ESG 공시 통제시스템의 구축은 ESG 공시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기업들이 꼭 갖추어야 할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원고는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으로 사안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6월 21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서>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히보기](#)